

메시지 2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삶

(1)

참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함

성경: 요 15:1, 4-5, 요일 2:6, 20, 24, 27, 3:22-24

- I. 우리는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사는 것의 실질적인 체험을 보아야 한다 — 요 14:20, 26, 15:26, 고후 13:14, 엡 2:18, 3:16-17.
- A. 요한복음은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한 책이다 — 요 15:1, 4-5.
 - B.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사는 것에 관한 진리는 서신서들에서, 특별히 바울이 쓴 서신서들에서 매우 자세히 설명된다.
 - C. 서신서들에서 우리는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사는 것의 모든 실질적인 측면들과 세부 항목들을 볼 수 있다.
 - D. 우리는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사는 것의 체험 안으로 이끌려 들어가야 한다.
- II. 요한복음 15장에서 주 예수님은 자신이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 5절.
- A. 포도나무의 가지들로서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해야 한다. 그럴 때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것이다 — 요 15:4-5.
 - B.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은 신성한 삼일성 안에 사는 것이다 — 마 28:19, 고전 1:30.
 - C.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하는 것은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사는 것이다 — 요 15:4-5, 롬 8:11, 고후 13:14.
 - D.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우리가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할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산다 — 요 15:4-5, 7.
- III. 우리는 참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신성한 삼일성 안에 산다 — 요 15:1, 5.
- A. 참포도나무와 함께 그 가지들, 곧 아들 그리스도와 함께 아들 안의 믿는 이들은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이다. 이 유기체는 신성한 경륜 안에서 그분의 풍성으로 자라며 그분의 생명을 표현한다 — 딤후 1:4, 엡 3:9, 요 15:1, 5.
 - 1. 아들의 표징인 참포도나무의 기능은 삼일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유기체를 얻으심으로써 그분의 신성한 생명 안에서 번식되시고 확산되시고 영광스럽게 되시도록 하는 것이다 — 요 15:8, 16.
 - 2. 농부로서 아버지는 근원과 창시자이시고, 아들 하나님은 중심과 체현과 나타남이시며, 영 하나님은 실재와 실재화이시고, 가지들은 단체적인 표현인 몸이다 — 요 15:1, 4-5, 26.
 - a. 아버지의 온 존재와 모든 소유는 아들 그리스도 안에 체현되신 다음, 실재이신 그 영 안에서 실재화되신다 — 요 16:13-15.
 - b. 그 영께서 소유하신 모든 것은 가지들인 우리 안으로 일해 떨어져, 우리를 통해 표현되고 증언된다. 이런 식으로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표현되시고 나타나시며 영광스럽게 되신다 — 엡 3:16-21.
 - B. 포도나무의 가지들인 우리는 포도나무 안에 거해야 한다 — 요 15:4-5.

1.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분께서 우리 안으로 가지를 받아 내셨고, 우리는 그분 안에 있는 가지들이 되었다 — 요 3:15.
 2. 주님 안에 있는 것은 연결의 문제이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교통의 문제이다 — 고전 1:9, 30.
 3.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가 포도나무 안에 있는 가지들이라는 분명한 이상을 보는 것에 달려 있다. 일단 자신이 포도나무 안에 있는 가지들이라는 것을 보았다면, 우리는 우리와 주님 사이의 교통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 요 15:2.
 4.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이다 — 요일 2:24, 27-28, 4:13.
 - a.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과 한 영이 되는 것이다 — 고전 6:17.
 - b.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한 조건이다 — 요 15:4상, 5상.
- C. 우리는 주님 안에, 아들 안에, 아버지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한다 — 요일 2:6, 24, 3:22-24.
1.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 요일 2:6.
 - a. 주님은 만물을 소유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며, 만물과 모든 사람에게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이시다 — 계 1:5.
 - b. 우리는 우주의 주님이신 분 안에서 살고 있다 — 엡 1:20-23.
 2. 아들 안에 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아들의 자격과 관련된다 — 마 3:17, 17:5.
 - a. 아들은 아버지의 생명과 함께 아버지의 본성을 소유하여 아버지를 표현하시는 분이시다 — 요 5:26.
 - b. 아들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본성을 누리며, 아버지를 표현하고 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누릴 권리를 누린다 — 엡 1:14.
 3. 우리는 또한 모든 방면과 모든 일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있다 — 요일 2:24.
 - a. 우리는 아들 안에 거할 때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되는데, 이것은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이시기 때문이다 — 요일 2:23-24.
 - b. 우리는 삼일 하나님 안에 살 때 아들들로서 사는 것이다 — 히 2:10.
 4.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 — 요일 3:24.
 - a.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을 갖고, 모든 형제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갖는 것이다 — 요일 3:23.
 - b.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하나님 안에 거한다. 우리를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 주님과 그리스도께 연결해 주는 것은 그 영이다 — 요일 3:22-24.
- D. 우리는 기름바름의 가르침에 의해 삼일 하나님 안에 거한다 — 요일 2:27.
1. 기름바름은 내주하시는 복합되신 영, 곧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 주시는 영께서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것이다 — 요일 2:20, 고전 15:45, 고후 3:6.
 2. 우리는 주님의 피의 씻음을 체험하고 기름 바르시는 영을 우리의 내적 존재에 적용함으로써 그리스도와의 신성한 교통 안에 거한다 — 요 15:4-5, 요일 1:5, 7, 2:20, 27.
 3.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기름부음 받으신 분이시자 기름 부으시는 분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지체들로서 그분을 내적인 기름바름으로 누린다 — 고후 1:21-22.
 4. 기름바름은 우리 안에 계신 복합되신 영께서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우리 안에 바른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으로 적셔지고 하나님을 소유하며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게 된다. 기름바름은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생각을 생명의 내적 감각, 곧 내적 의식에 의해 그분의 지체들에게 전달해 준다 — 시 133편, 고전 2:16, 롬 8:6, 27.
 5. 그 영의 기름바름의 가르침은 생명의 내적 감각이다 — 행 16:6-7, 고후 2:13.
 6.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 십자가로 처리받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에 복종하고, 몸의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그 영의 기름바름을 가지며 몸의 교통을 누릴 것이다 — 엡 4:3-6, 15-16.